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본 문화재 안내판 현황분석 연구

국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Boards
from Perspective of Universal Design

focusing on the UNESCO World Heitage Sites in Korea

주 저 자 : 정수진 (Jung, Soo Jin)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공 동 저 자 : 이재규 (Lee, Jaekyu)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교수

교 신 저 자 : 장영호 (Jang, Youngho)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교수

<https://doi.org/10.46248/kidrs.2022.1.254>

접수일자 2022. 2. 24. / 심사완료일자 2022. 3. 20. / 게재확정일자 2022. 3. 25.

Abstract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s in Korea are recognized as having universal value to be protected for the whole of humanity which has increased interests at home and abroad leading to many visits. An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design that is accessible to all people regardless of their age or gender or disability has become important due to rapid social changes such as steep growth in the disabled population the continued growth of foreign travel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rapid entry into an ultra-aging society. Therefore the purpose of study is to identify the elements of universal design overlooked in the existing cultural property guide and to supplement the information board that anyone can easily use. This study derived universal design evaluation categories through guidelines for the cultural heritage guide and the theoretical review of Universal Design and set the evaluation ranges to Seoul, Suwon and Gyeongju, which attract the most visitors among Korea's world cultural heritages. The evaluation table for information boards from the Universal Design perspective was produced based on an on-site survey and evaluation by ten interviewees.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is limited to parts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is still lacking in world heritage sites across the country. Improving social awareness of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should be a priority. It is confirmed that we need to improve the physical access of pedestrian routes in the cultural property space and the supplementation of the accompanying guide system is also essential.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utilize various information means that can be chosen by the marginalized and to review the general application of the guideline for standard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boards. Through these improvements, the environment in which diverse populations can comfortably enjoy cultural assets is expected to be built.

Keyword

Universal Design(유니버설디자인), UNESCO(유네스코), Cultural Heritage (문화재), Information board(안내판), Guideline(가이드라인)

요약

국내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며 많은 관람으로 이어졌다. 장애 인구의 가파른 증가, 외국인 여행자와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 증가,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성별, 나이 등 모든 것에 제약 없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관점에서의 접근이 매우 중요해졌다. 하여, 기존의 문화재 안내에서 간과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재 안내판 체계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국내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많은 내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는 서울과 수원, 경주로 범위를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지별 현장조사와 인터뷰인 10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문화재안내판 평가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아직 문화재안내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은 수도권 일부에 국한되어있고 전국에 분포해 있는 세계문화유산에서 유니버설디자인 확장적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문화재 공간에서 물리적인 접근에 대한 보행로 개선이 절실하며, 함께 동반되는 안내체계 보완도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람 약자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내수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구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형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의 전반적 적용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를 통해 문화재를 향유 하는 모든 관람자 누구든 편하게 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관람 안내 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 대상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 2-1. 유니버설디자인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2-2.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의 수립 흐름
- 2-3. 문화재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지표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문화재는 인류의 삶을 축소해 보여주는 문화적 소산이다.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다고 인정된 것으로, 해당 유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한 국내외 다양한 관광객들의 관람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문화재안내판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였다.

2006년부터 추진하게 된 주요 유형별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2009년 문화재청은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안내판 정비 관리에 대한 지침 부재, 문화재안내판 시스템 개선 시 지원체계 부재, 임기응변식 개선 프로세스의 문제 등 문화재 안내판을 둘러싼 제반 현황을 파악하였고 그 후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안내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문화재청이 발간한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2020)을 통해 꾸준히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 문화재안내판은 문화재 주변의 단순한 시설물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문화재 일부분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며 관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매개체로 발전하였다.

개선 이후에도 잦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의 중복안내판 설치로 인해 빚어진 혼란이 있으며, 문화재

3. 국내 세계문화유산 안내판 현황 조사분석

- 3-1. 국내 문화재안내판 문제점
- 3-2. 국내 세계문화유산 안내판 현황조사
- 3-3. 세계문화유산 안내판 분석 종합

4. 결론

참고문헌

청이 제시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외에 추가 설치된 지지체의 안내판은 일관성 부재, 경관과의 부조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재안내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관리 및 운영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문화재안내판 조성 시에 일관적인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문제점이 잔존 하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관람자 불편을 해소하는데도 역부족임이 확인되고 있다. 장애 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외국인 여행자의 증가,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 증가,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장애 인뿐만 아니라 성별, 나이 등 모든 것에 제약 없는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매우 중요하게 조명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관광객들의 관람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체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재안내판이 요구되지만, 현재 문화재 관람환경에서 문화재 안내판은 다양성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공공의 문화 생활공간을 조성하거나 개선할 때, 유니버설디자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한 시설확보가 중요해졌다.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의 관람환경 역시 연령, 인종, 능력 차이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평균적인 사용자를 기준으로 문화재안내판을 설치해왔다면 이제는 인간의 생애 주기 전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누구에게나 접근성이 좋고 불편함 없는 관람 환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행정 상황과 개선할 부분이 여전한 문화재 안내판 상황에서 나이, 국적, 신체적 조건,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고려를 전제하고 불편함 없는 관람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꾸준한 개선에도 간과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찾아 모두가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재안내판 체계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누구나 어려움 없이 문화재 관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유니버설디자인 문화재안내판 체계로의 접근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의 세계유산(World Heritage)으로 등재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을 대상으로 하여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관점에서 문화재 안내판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2020)에 수록된 세계유산 관람객 현황의 통계표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2004-2020)에 근거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내 세계문화유산 중 가장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는 지역인 서울, 수원, 경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하였다. 문화재 안내판 구축의 기초가 되는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과 발간된 개선사례집을 고찰하여 문화재안내판이 개선되어 온 흐름을 파악한다. 사례연구를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항목표를 마련해 유니버설디자인 항목평가를 진행하였다. 문화재 관람 현장에서 무작위로 관람 약자를 포함한 관람객 1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인터뷰를 동반하여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지 별로 현장 촬영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화재 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지표로 도출한 종합평가로 전반적인 문화재 안내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이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현황분석의 결과를 정리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의 관람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유니버설디자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로널드 메이스(Ronald L. Mace)가 중심이 되어 처음 고안하였다.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을 시작으로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고려되었고, 이후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평생의 디자인(Lifespan Design)'으로 확장되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며 모두를 배려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개개인 모두를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이고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의 구성원은 나이와 성별, 신체적 능력과 특징도 다 다르다. 신체 능력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도차를 활용하고 노약자나 장애인은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따라서 모든 시설물에는 이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세계유산(World Heritage)은 특성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국내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문화적 공간이다. 세계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버설디자인과 세계문화유산은 모두를 위한 보편적 가치공유를 기초한다. 문화유산을 접하는 다양한 관람자들 모두 이용과 관람 안내가 여의치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꾸준한 발전이 요구된다. 국내의 다양한 유형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세계문화유산인 만큼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1]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 목록

등재연도	국내 세계유산
1995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1997	수원화성, 창덕궁
2000	경주역사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2007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9	조선왕릉 18곳
2010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4	남한산성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2018	산사, 한국 산지승원 7곳
2019	한국의 서원 9곳
2021	한국의 갯벌

2-2.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의 수립 흐름

2004년 서울 고궁 안내판 개정사업 이후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에 대한 표준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문화재안내판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자 2008년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본

지침으로 한 현상공모를 통해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을 선정하여 서울에 소개하는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에 도입해 문화재안내판 개선을 진행하였다. 이후 중앙부처에서 수립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발간이 진행되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2009)'은 디자인, 소재, 설치 위치, 수량, 안내 문안 측면을 고려한 전반적인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스템을 안내판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 문화재안내판의 종류와 설치기준

분류	세분류	설치기준
해설 안내판	종합안내판	면 단위 문화재로서 다수 또는 개별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경우 설치
	권역안내판	면 단위 문화재에 다수 또는 개별 문화재를 통합하여 안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설치
	개별안내판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나 권역 내에 포함되지 못한 문화재가 있는 경우 설치
가능성 안내판	길찾기	동선을 유도하는 지점과 편의시설, 권역과 권역을 이어주는 지점에 설치
	금자주의	제한, 주의 시 설치
	공공	공공안내판(상징 그림, 픽토그램)
	정보알림판	각종 행사나 공지사항 알림판
	임시	공사나 행사 등을 위한 임시 설치

출처 : 문화재청, 2009년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p.2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도 한국 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2009)을 발간하여 안내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안내 문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문화재 안내문 바로 쓰기(2016), 문화재안내판 안내문 작성 가이드라인(2018), 문화재영역 안내문 작성 가이드라인(2019)을 발간하였고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관한 원칙도 제시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부터 문화재청에서 국민 누구나 문화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안내판 정비사업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2020)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업데이트하며 꾸준한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다만, 어린이와 외국인 입장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은 명시되어 있지만, 다양한 관람자 모두를 배려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소 미흡하였다. 최근에서야 문화재 관람에 있어 다양성을 고려한 안내 환경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개정된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2019), 문화재 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2020)에서 다양한 관광 약자들도 포괄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강화한 내용을 수록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	개선내용
2018	- 안내판 실태 표본 조사 실시 - 궁궐, 고도 등 문화재 190건 안내판 정비
2019	- 17개 시도 143개소 지자체(광역시 6, 기초 137) - 1,740건 안내판 정비
2020	- 16개 시도 93개소 지자체(광역시 5, 기초 88) - 1,000여 건 안내판 정비

출처 : 문화재청,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발췌 재구성

2-3. 문화재 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지표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계기로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개발하였고, 1998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이 4원칙에서 7원칙으로 보완되었다.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은 공평한 사용, 사용의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적은 신체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 실수에 대한 관대함,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로 다양한 사용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표 4]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된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2019)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관광안내표지 디자인 기준¹⁾을 제시하고 있다.

[표 4]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관광안내표지 디자인 기준

점검기준		
보편적	사용성	모두 인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물리적	접근성	누구에게나 제약없이 접근이 용이
정보적	융통성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방법 제시
인지적	가독성	정확하게 읽고 인지되도록 제공
직관적	단순성	정보와 디자인은 가능한 단순
체계적	연속성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로 인식
환경적	심미성	장소 이미지에 적합하고 호감도 생성
관리적	안전성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내구성 있게 제작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 한국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p.10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 이 디자인 기준은 '2009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의 원칙이었던 가독성 단순성, 통일성, 연속성, 정체성, 심미성, 환경성을 바탕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을 접목하여 재정리한 기준이다.

에서 발간한 문화재 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 에서와 함께 문화재 관람에 있어 배려해야 할 관람 약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재정리하여 크게 시청각 감각약자, 수직보행 이동약자, 언어인지 소통 약자로 나뉘고 세부적으로 유형별 배려사항을 [표 5]와 같이 정립하였다.

[표 5] 관람약자 유형별 배려 사항

구분	세부항목	배려사항
시청각 감각약자	시각	점자, 음성안내장치, 유도블록, 촉지도, 가독성 높은 크기, 정렬, 색상 사용
	청각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심볼 사용, 수화 가능한 안내원 배치.
	고령자	가독성 높은 크기, 정렬, 색상 사용
수직보행 이동약자	휠체어 유모차 사용자	보조도구 사용자 눈높이를 고려한 안내표지 정보표기, 경사 보행로, 위험 구간, 거리가 표기된 안내, 단차를 없애거나 경사로 설치 등 접근 가능하도록 주변 환경 정비
	임산부	
	고령자	
	외국인	
언어인지 소통약자	지적장애인	단순하고 쉬운 언어, 모든 핵심정보 국,영문으로 일관성 표기, 국제적 기준의 심볼 사용, 사전안내 서비스 준비
	어린이	
	고령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 한국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p.10

이를 종합하여, 관람공간의 문화재안내판을 유니버설디자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총 8개의 항목과 31가지 세부내용으로 문화재 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지표를 [표 6]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6] 문화재 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구분	세부항목	분류
보편적 사용성 (A)	시청각 감각약자, 수직보행 이동약자, 언어인지 소통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안내수단이 제공되는가	A-1
	어린이, 휠체어 등 눈높이를 고려하였는가	A-2
	중요 정보 인식에 혼선이 없는가	A-3
	필수 정보가 외국어 1종 이상 병기되어 있는가	A-4
	누구나 알 수 있는 국제 국가 표준의 일관적인 그림표지와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가	A-5
물리적 접근성 (B)	누구에게나 제약 없이 문화재와 안내판에 접근이 용이한가(휠체어, 유모차 등 보조도구 사용)	B-1
	점자, QR code 등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도 손이 편하게 닿는 곳에 있는가	B-2
	주변 공간을 정비하여 보조도구를 사용한 관람자도 충분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가	B-3

	정보를 가리는 난간, 수목, 다른 시설물이 없는가	B-4
	사전안내 서비스(점자 리플렛, 홈페이지 안내, 사전학습서비스 등)가 준비되어 있는가	B-5
정보적 융통성 (C)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는가	C-1
	오고 가는 방향의 정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가	C-2
인지적 가독성 (D)	정확하게 읽히고 인지되도록 표기 되어 있는가	D-1
	문자의 크기는 읽는 위치와 거리를 감안하는가	D-2
	애매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방향 정보의 지시가 명확한가	D-3
	관람약자들을 위한 시청각 장치, 도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D-4
직관적 단순성 (E)	단순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E-1
	모든 핵심정보를 국문으로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가	E-2
	너무 많은 정보로 복잡하지 않는가	E-3
체계적 연속성 (F)	하나의 통합적인 안내 체계로 인식되는가	F-1
	기능적으로, 시각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F-2
	관람자가 필요로 하는 장소를 파악하여 충분한 개수로 연속성 있게 설치되어 있는가	F-3
	내용상 중복 설치되어 혼란을 주지는 않는가	F-4
	다른 정보매체와 일관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보완이 되고 있는가(인쇄물, 온라인, 안내소 등)	F-5
환경적 심미성 (G)	문화재와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가	G-1
	과도한 크기로 설치되거나 관람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가	G-2
관리적 안전성 (H)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내구성 있게 제작설치되었는가	H-1
	위험구간, 거리표기 안내, 경사로 설치 등 안전한 접근이 가능한가	H-2
	단차를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여 문화재와 안내표지에 접근이 가능한가	H-3
	미끄러지기 쉬운 지면 경사로나 계단 주변에 설치하지 않는가	H-4

3. 국내 세계문화유산 안내판 현황 조사분석

3-1. 국내 문화재안내판 문제점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을 통해 살펴본 문화재안내판 현황은 형태, 색채, 재질 등 디자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최근 5년간 게재된 공고 가운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요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일관성 없는 디자인과 과도한 규모로 인한 문화재 경관 저해, 노후화된 안내판이 곳곳에 남아 있어 발생하는 통일성 결여, 무분별한 색채의 적용으로 인한 주변과의 부조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소개 측면에서는 유지관리의 비효율성, 안내판의 가독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재 등이 나타났다. 설치

측면에서도 관람 동선에서 벗어난 배치, 기타 편의시설 안내와의 겹침 현상으로 위치 및 정보 접근성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는 더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는 정보 전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내 문안에서 통일되지 않은 서체와 크기로 인해 인지가 낮게 나타나며, 문안의 적절한 분량 설정 미흡에 따른 전달력 저하, 불필요한 안내 문안 정보, 경리 미흡,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한 다국어 표기 미비, 시청각 감각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안내수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재 보존 측면과 상충하여 보안이 미흡한 경사로 설치 등 보편적인 배려가 미흡하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유도차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람객들의 물리적 및 정보 접근성,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유형의 관람자 동선을 안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3-2. 국내 세계문화유산 안내판 현황 조사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하여 경주와 서울, 수원을 대상으로 현장 탐방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창덕궁,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역사지구의 대릉원 그리고 수원화성의 문화재안내판을 대상으로 하여 [표 6]의 평가항목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에 대하여 현장에서 관람 약자를 포함한 관람객 1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인터뷰와 평가를 진행하여 평균점수를 도출하였다. 평가척도는 매우 나타남(5), 나타남(4), 보통(3), 일부 나타남(2), 대체로 나타남(1)의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조사항목은 안내판 종별로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안내판의 종류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3-2-1. 창덕궁

창덕궁을 안내하고 있는 문화재 안내판의 현황은 [표 7]과 같다.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해설안내판과 기능성 안내판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종합안내판, 권역 안내판, 개별안내판, 길 찾기, 금지, 주의, 공공정보 알림판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안내판 표준형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으며, 2019년에 이루어진 무장애 관광 조성을 위해 진행된 안내판 디딤 계단, 경사로 설치

와 함께 곳곳의 유도차, 휠체어 동선 안내 등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의 보완이 진행되었다. 개선 이후 안내판의 부분 추가설치로 일관성 저하가 다소 나타나고 있으나, 배치, 형태 색채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표준형 디자인을 채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구성된 수동 버튼식 오디오 가이드, 다국어 전문해설사 안내와 함께 수화안내도 진행한다. 2012년부터 점자 안내 책자가 매표소나 입구에 배치되어 있다.

[표 7] 창덕궁 안내판 현황

구분	현황																
종합 안내판																	
권역 안내판																	
개별 안내판																	
길찾기																	
금지 주의																	
보행로 경사길 표기																	
안내문안 다국어 표기 축지도																	
관람해설 음성안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 2, 11, 12일</th> <th>3, 4, 5, 6, 7, 8, 9, 10일</th> </tr> </thead> <tbody> <tr> <td>한국어</td> <td>09:30 11:30 13:30 15:30</td> <td>09:30 11:30 13:30 15:30 16:30</td> </tr> <tr> <td>영어</td> <td></td> <td>10:15 13:15</td> </tr> <tr> <td>중국어</td> <td></td> <td>10:00 16:00</td> </tr> <tr> <td>일어</td> <td></td> <td>11:00</td> </tr> </tbody> </table>		구분	1, 2, 11, 12일	3, 4, 5, 6, 7, 8, 9, 10일	한국어	09:30 11:30 13:30 15:30	09:30 11:30 13:30 15:30 16:30	영어		10:15 13:15	중국어		10:00 16:00	일어		11:00
구분	1, 2, 11, 12일	3, 4, 5, 6, 7, 8, 9, 10일															
한국어	09:30 11:30 13:30 15:30	09:30 11:30 13:30 15:30 16:30															
영어		10:15 13:15															
중국어		10:00 16:00															
일어		11:00															

창덕궁 현장의 관람객 가운데 무작위로 일반 관람자 5명과 함께 관람 약자인 고령자 1명, 유도차사용자 2명, 외국인 1명으로 구성된 표본 10명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점수표를 받아 항목별로 평균값

을 도출하였다. 창덕궁 관람에 있어 문화재 안내판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는 92%로, 전반적으로 다양한 관람객을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빛바램으로 인한 흐릿한 문안, 어려운 언어 사용 등 정보취득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였고 경사 보행로 안내가 일부 부족해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나타났고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과 일부 안내판 잔디밭 안에 위치해 접근성 측면에서 일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표8 참조)

[표 8] 창덕궁 문화재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점수표

구분	분류	점수	구분	분류	점수
보편적 사용성 (25)	A-1	5	직관적 단순성 (15)	E-1	3
	A-2	5		E-2	5
	A-3	4		E-3	4
	A-4	5	소계	12	
	A-5	5	F-1	F-1	4
	소계	24		F-2	4
물리적 접근성 (25)	B-1	5	체계적 연속성 (25)	F-3	5
	B-2	5		F-4	5
	B-3	5		F-5	4
	B-4	5	소계	22	
	B-5	5	환경적 심미성 (10)	G-1	5
	소계	25		G-2	5
정보적 융통성 (10)	C-1	5	관리적 안전성 (20)	소계	10
	C-2	4		H-1	5
	소계	9		H-2	4
인지적 가독성 (20)	D-1	4	H-3	5	
	D-2	3	H-4	5	
	D-4	5	소계	19	
	D-5	5	평가 합계 (150)		138
	소계	17			

3-2-2. 수원 화성

2018년 5월부터 2년간 추진된 수원화성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을 통해 새롭게 정비되었으며, 정비 주체인 수원시는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원화성의 특색을 살려 문안 작성부터 안내판 디자인, 제작 및 설치까지 총 168개의 문화재 안내판을 교체하였다. 현재 화성의 안내판의 현황은 [표 9]와 같다. 입구의 종합안내와 함께 축지도, 음성안내가 설치되었고 경기관광공사에서 문턱 없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유모차, 휠체어 이동 가능 동선을 안내하고 있다.

[표 9] 수원화성 문화재안내판 현황

구분	현황
권역 안내판	
개별 안내판 길찾기	
금지 주의	
축지도 음성안내 경사로 안내	
관광 해설	<p>수원화성 관망안내도 현장신청 (관람할 구간 사전 질의 후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처: 4인 이상 신청 가능 이용시간: 10:00 ~ 18:00(2월 ~ 10월) / 18:00 ~ 17:00(11월 ~ 2월)</p>

수원화성 관광홈페이지에서도 보행 경사길을 표기한 자료가 게재되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관람 동선은 보행로와 경사로가 섞여 있어 편안한 이동을 위한 동선 안내가 필요하였다. 하여, 일부 구간은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도 성곽 산책이 가능하지만, 경사가 상대적으로 심한 구간, 계단 위나 경사에 설치된 개별 문화재 안내판은 접근이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2002년 설치된 수원화성 문화재안내판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재질과 형태, 디자인이 다른 안내판이 남아 있어 다른 안내판과의 일관성 확보에 대해서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원화성 현장의 관람객 가운데 무작위로 일반 관람자와 함께 관람 약자인 임산부, 외국인, 고령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점수표를 받아 평균값으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유니버설디자인 평가는 80%로 다소 양호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안내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며 안내수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부분에서는 경관을 해치는 큰 크기의 예전 안내판이 입구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문안 정리가 되지 않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보취득 면에서 보완이 다소 필요하였고 경사로 구간 등 위험에 대한 대응이 다소 부족하였다. 계단 위, 경사로 등 위치한 일부 안내판은 접근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표10 참조)

[표 10] 수원화성 문화재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점수표

구분	분류	점수	구분	분류	점수
보편적 사용성 (25)	A-1	3	직관적 단순성 (15)	E-1	3
	A-2	4		E-2	5
	A-3	4		E-3	3
	A-4	5		소계	11
	A-5	5	체계적 연속성 (25)	F-1	4
	소계	21		F-2	4
물리적 접근성 (25)	B-1	3		F-3	5
	B-2	5		F-4	4
	B-3	3		F-5	5
	B-4	3	소계	21	
	B-5	5	환경적 심미성 (10)	G-1	5
	소계	19		G-2	3
정보적 융통성 (10)	C-1	4		소계	8
	C-2	4	관리적 안전성 (20)	H-1	5
	소계	8		H-2	4
인지적 가독성 (20)	D-1	4		H-3	4
	D-2	4		H-4	2
	D-4	5		소계	15
	D-5	5	평가 합계 (150)		121
	소계	18			

3-2-3. 경주의 세계문화유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 관광지로 국내 가장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온 경주가 보유한 문화유산 가운데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을 중심으로 안내판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림 1] 경주 역사지구의 문화재 입구 전경

불국사의 경우, 개별안내판과 일부 안내판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안내판 표준형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형태와 규모가 문화재를 압도하는 상황이 많았고, 통일되지 않은 서체 및 정보의 시인성, 개별안내판의 난립 등이 관람환경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국어 병기가 일부 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동선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추가적인 안내 장치가 필요하다.

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입구와 경로마다 경사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모차와 휠체어의 이동이 어려운 관람뿐만 아니라 안내판에 대한 접근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표11 참조)

[표 11] 불국사 안내판 현황

구분	현황													
종합 안내판														
개별 안내판														
길찾기														
금지주의														
문화관광해설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적지명</th> <th>해설사 배치</th> <th>해설사 근무시간</th> </tr> </thead> <tbody> <tr> <td>대웅전</td> <td>한국어 2명(영어 1명, 통역 1명)</td> <td>한국어 09:00 - 17:00 영어 10:00 - 17:00</td> </tr> <tr> <td>불부사</td> <td>한국어 2명(영어 1명, 통역 1명) * 외국인 해설사(영어)는 별도 신청하여야 함</td> <td>한국어 09:00 - 17:00 영어 10:00 - 16:00</td> </tr> <tr> <td>석굴암</td> <td>한국어 2명(영어 1명, 통역 1명)</td> <td>한국어 09:00 - 16:00 영어 10:00 - 16:00</td> </tr> </tbody> </table>	사적지명	해설사 배치	해설사 근무시간	대웅전	한국어 2명(영어 1명, 통역 1명)	한국어 09:00 - 17:00 영어 10:00 - 17:00	불부사	한국어 2명(영어 1명, 통역 1명) * 외국인 해설사(영어)는 별도 신청하여야 함	한국어 09:00 - 17:00 영어 10:00 - 16:00	석굴암	한국어 2명(영어 1명, 통역 1명)	한국어 09:00 - 16:00 영어 10:00 - 16:00	
사적지명	해설사 배치	해설사 근무시간												
대웅전	한국어 2명(영어 1명, 통역 1명)	한국어 09:00 - 17:00 영어 10:00 - 17:00												
불부사	한국어 2명(영어 1명, 통역 1명) * 외국인 해설사(영어)는 별도 신청하여야 함	한국어 09:00 - 17:00 영어 10:00 - 16:00												
석굴암	한국어 2명(영어 1명, 통역 1명)	한국어 09:00 - 16:00 영어 10:00 - 16:00												

경주 불국사의 관람객 가운데 무작위로 일반 관람자와 5명과 함께 관람 약자인 임산부 1명,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 1명, 외국인 2명, 고령자 1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점수표를 받아 평균 값으로 도출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53%로 전반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위험, 금지주의 안내가 많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 개별, 방향 안내판에서 정보 전달 방법이 한정적이고 부족하여 정보취득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 접근 측면에서 보완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표12 참조)

석굴암은 불국사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사례와 유사하게 경사 보행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 앞까지의 접근 자체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계단과 경사에 설치된 안내판으로의 접근성 문제, 적절한 정보의 정리 문제, 안내판의 영문 설명 누락 등 접근성과 시인성, 경관과의 조화성도 낮았다. 전반적으로 관람과 안내가 열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표13 참조)

[표 12] 불국사 문화재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점수표

구분	분류	점수	구분	분류	점수
보편적 사용성 (25)	A-1	2	직관적 단순성 (15)	E-1	3
	A-2	2		E-2	4
	A-3	3		E-3	3
	A-4	4	소계	10	
	A-5	4	체계적 연속성 (25)	F-1	3
소계	15	F-2		2	
물리적 접근성 (25)	B-1	2		F-3	2
	B-2	2		F-4	2
	B-3	2		F-5	1
	B-4	3	소계	10	
	B-5	3	환경적 심미성 (10)	G-1	3
소계	12	G-2		3	
정보적 융통성 (10)	C-1	2	소계	6	
	C-2	4	관리적 안전성 (20)	H-1	3
	소계	6		H-2	3
인지적 가독성 (20)	D-1	4		H-3	1
	D-2	3		H-4	2
	D-4	3		소계	9
	D-5	2	평가 합계 (150)		80
	소계	12			

[표 13] 석굴암 안내판 현황

구분	현황
권역 안내판	
개별 안내판	
길찾기	
금지 주의	
문화 관광 해설	

경주 석굴암의 현장 관람객 가운데 무작위로 일반 관람자 5명과 함께 관람 약자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2명, 고령자 3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점수표를 받아 평균값으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관람객을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46%로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을 고려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시청각 감각약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입구에서부터 문화재와 안내판에 도달하기까지의 경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이동약자의 물리적 접근성과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이 매우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다.(표 14 참조)

[표 14] 석굴암 문화재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점수표

구분	분류	점수	구분	분류	점수
보편적 사용성 (25)	A-1	1	직관적 단순성 (15)	E-1	3
	A-2	2		E-2	4
	A-3	3		E-3	4
	A-4	4	소계	11	
	A-5	4	체계적 연속성 (25)	F-1	2
소계	14	F-2		3	
물리적 접근성 (25)	B-1	1		F-3	3
	B-2	1		F-4	2
	B-3	1		F-5	3
	B-4	4	소계	13	
	B-5	3	환경적 심미성 (10)	G-1	3
소계	10	G-2		3	
정보적 융통성 (10)	C-1	2	소계	6	
	C-2	3	관리적 안전성 (20)	H-1	3
	소계	5		H-2	2
인지적 가독성 (20)	D-1	4		H-3	1
	D-2	4		H-4	2
	D-4	4		소계	8
	D-5	1	평가 합계 (150)		80
	소계	13			

대릉원 관람 동선에 설치된 개별안내판 및 길 찾기 안내판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안내판 표준형 디자인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안내표지가 혼재되어 있었다. 특히, 통일되지 않은 안내판의 크기, 형태, 색채 및 개별안내판의 중복 설치가 빈번하게 나타나 불필요한 수량도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일부 안내표지는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며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추가로 난립한 안내판 현황을 볼 수 있었고 이전의 안내판도 함께 잔존하고 있어 관람환경에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문화재의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는 추가로 관광해설사 안내, 안내판에 표기되어있는 QR코드로 오디오 해설안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15 참조)

경주 대릉원의 현장 관람객 가운데 무작위로 연령대 별 관람자 5명과 함께 관람 약자인 유모차를 동반한

[표 15] 경주 역사지구의 대릉원 안내판 현황



가족 3명, 고령자 2명으로 구성된 1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점수표를 받아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평가한 결과 65%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다소 미흡하지만, 불국사와 석굴암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중복으로 설치된 사례들이 많아 하나의 안내 체계라는 인식은 낮게 평가되었다. 개선되지 않은 안내 문안 흔재

[표 16] 대릉원 문화재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점수표

구분	분류	점수	구분	분류	점수
보편적 사용성 (25)	A-1	2	직관적 단순성 (15)	E-1	3
	A-2	3		E-2	4
	A-3	3		E-3	4
	A-4	5	소계	11	
	A-5	4	체계적 연속성 (25)	F-1	3
	소계	17		F-2	3
물리적 접근성 (25)	B-1	3		F-3	3
	B-2	4		F-4	2
	B-3	5		F-5	2
	B-4	5	소계	13	
	B-5	3	환경적 심미성 (10)	G-1	3
	소계	20		G-2	3
정보적 융통성 (10)	C-1	3	소계	6	
	C-2	4	관리적 안전성 (20)	H-1	4
	소계	7		H-2	2
인지적 가독성 (20)	D-1	5		H-3	1
	D-2	3		H-4	3
	D-4	4		소계	10
	D-5	2	평가 합계 (150)	98	
	소계	14			

가 그대로 남아 있는 안내판이 있었으며, 관람 약자를 위한 안내수단 미흡 등 정보 접근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람환경에서 일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 공간이 평지임에도 안내판과 문화재로의 접근이 불편하다고 평가되었다.(표 16 참조)

3-3. 세계문화유산 안내판 분석 종합

창덕궁은 사용성, 접근성, 정보의 융통성에서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능유적본부와 꾸준한 관심 아래 시청각 감각 약자를 배려한 점자 안내판 설치, 수화 가능한 안내원 배치와 수직보행 이동약자를 위해 경사 보행로와 구간이 표시된 안내 설치 등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한 접근으로 안내판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중복된 안내판 설치, 돌바닥 구간인 낮은 접근성 등 미흡한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였다. 수원화성 또한 수원시의 꾸준한 관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안내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일부 구간에 한정되긴 하지만 음성안내장치가 설치, 경사로 및 거리가 표기된 부수적인 안내 체계 설치, 홈페이지의 사전안내 서비스로 다양한 관람객들을 배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서울의 창덕궁과 수원 화성의 문화재안내판은 다양한 관람객들이 다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종합평가되었다.

반면, 가장 먼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의 문화유산들의 관람환경은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추가 및 교체 설치 위주의 개선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본 문화재안내판 가이드 라인의 전반적인 반영보다는 일부 반영으로 이어졌고 간혹 하는 이전 안내판들과 개선된 안내판의 통일성이 부족하여 하나의 안내 체계라는 인식이 어려웠으며, 다양한 유형의 관람객을 고려한 안내요소도 미흡하게 갖추고 있었다. 시청각 감각약자를 위한 다양한 안내수단 체계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창덕궁과 수원화성에서는 나타났던 수직보행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및 안내 체계는 거의 갖추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아직 다양한 관람 약자의 문화재 관람환경을 배려하고 있는 문화재안내판은 아쉽게도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수의 문화재로 일부 국한된 것으로 파악되며, 지방에 분포해 있는 세계문화유산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확장적용은 아직 미흡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표 17] 문화재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총 점수표

구분	창덕궁	수원화성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사용성(25)	24	21	15	14	17
접근성(25)	25	19	12	10	20
융통성(10)	9	8	6	5	7
가독성(20)	17	18	12	13	14
단순성(15)	12	11	10	11	11
연속성(25)	22	21	10	13	13
심미성(10)	10	8	6	6	6
안전성(20)	19	15	9	8	10
총점(150)	138	121	80	80	98

4. 결론

문화재 관람환경을 조성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지만, 특히, 안내시스템은 관람자들에게 전반적인 관람 동선과 문화재 이해도에 큰 영향을 준다. 안내시스템은 관람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이 될 때, 진정한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여, 문화재 안내시스템 개선은 다양한 관람자에 대한 배려를 기반해야 한다.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재의 안내판 현황에서 알 수 있듯, 문화재 공간마다, 지역마다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

아직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한 문화재 안내판 구축은 일부 수도권에 국한되고 있었다.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이름 아래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 공간인 만큼 다양한 관람객들 모두 문화재 불편함 없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안내 체계가 필연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전반적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밀접한 생활 속 공공공간이나 공공시설물은 점진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며 개선되고 있다. 문화재 공간도 특수한 환경이긴 하지만, 역시 공공공간으로서 관람 약자를 위한 면밀한 검토를 수반한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 안내판 사례를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관람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보편화 되지 못한 상태로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세계문화유산을 관리하고 개선을 진행할 때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 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 등에 기재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둘째, 일부 수도권의 문화유산을 제외하고, 문화재 관람공간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접근에 대한 편의 개선은 미흡하였다. 하여, 수직보행 이동약자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기초하여 기본적 접근이 가능한 주변 환경 정비와 경사 보행로 설치는 문화재 공간별로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문화재 공간 입구에서 전반적인 안내를 담당하는 종합안내판으로의 접근부터 발생하는 문제, 단차와 문턱이 있는 관람 구간의 문제 등 전반적인 관람 동선에 배려가 적용될 수 있게 보행로를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치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철저한 부분부터 문화재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경사로 설치 위치나 배치에서 파생되는 관람객의 접근성, 안전성, 수량, 주의사항 등을 함께 고려한 경로 안내, 거리 표기 안내 등을 함께 추가 보완도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관람 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안내수단을 체계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입구의 점자 책자 배치나 해설사 안내는 다소 다양한 관람자를 포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관람객을 위한 음성 가이드 안내기기 배치를 독려하고 축지도 및 축소된 사이즈의 3D 모형 안내 배치, 수화 안내, 경사로 안내 등 다양한 유형의 관람자들을 배려한 안내 선택지들을 개발하고 구비하여 세계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모두가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꾸준한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설치 이후에도 안전성, 내구성, 시인성을 유지 및 확보를 위해 안내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부 수도권 문화재 안내판을 제외하고는 문화재 안내판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표준적 문화재 안내요소들이 부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사례들을 꾸준히 접할 수 있도록 관람자가 문화재 공간 내에서 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안내 체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추가 설치되거나 일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안내판의 형태, 색채, 서체, 안내 정보 등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문화재 공간 전체에 설치된 안내판의 전반적인 적용과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정보가 복잡하게 설치된 구간에서는 더욱 문화재안내판 기본원칙인 유형의 표준화, 규격의 최적화, 안내 문안의 레이아웃 체계화, 소재의 표준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배치 설치의 표준화, 과도한 안내 문안의 분량 문제나 가독성의 문제, 다국어 표기 등 개선을

진행하여 다양한 관람자의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현재 문화재 안내판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태, 색채, 서체, 수량, 안내 문안 정보 등에 대한 표준화 시스템을 원칙적으로 검토 적용이 문화재 공간마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표준화를 전제로 각 문화유산 관람 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전반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안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개선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으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주목해 우리나라 대표 세계유산에 적용된 안내판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성을 정리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를 둔다.

향후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전국에 분포한 세계문화 유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재에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안내판 개선이 보편화 되어 관람에 불편을 주는 요소를 없애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문화재의 관람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고영준,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방법과 사례. 서울: 이담북스, 2011
2. 방일경, 배려하는 디자인, 서울: 미술문화, 2019
3. 문화재청,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 2009
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가이드라인, 2019
5. 문화재청,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0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재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

7. 서울특별시, 문화재안내판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 2017
8. 수원시, 수원화성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 2020
9. 문화재청,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0
10. 문화재청, 국립국어원 한눈에 알아보는 문화재 안내문 바로 쓰기, 2016
11. 문화재청, 사례로 보는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 2018
12. 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유적지 무장애 공간 조성연구, 2018
13.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20
1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재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
15. So, Hyun-Su, & Kim, Hai-Gyoung. A Study on the Arrangement and Design of Cultural Property Signs focused on the Seoul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located on Jongno-gu Area. Institute of Korea Landscape Studies Yirakjae. 2012
16. Seol, Yeongdong,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Universal Design Evaluation in Public Sector.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5(62), 193-204. 2020
17. Park, Young Gi, & YuYang, & Kim, SimWon, An Evaluation on Universal Design of Seoul Forest. Journal of Digital Design, 15(1), 775-784, 2015
18.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04-2020)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https://know.tour.go.kr/>
19. 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